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3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66)
역사의 아픔 딛고 축제장으로

입력 : 2005. 02.18. 00:00:00



▲새별오름을 오르는 탐사단 뒤로 이달오름의 쌍봉이 나란히 솟아 있고, 그 사이에 누운오름이 낮게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새별오름·이달봉·누운오름

새별오름은 5개의 봉우리가 하늘에 외롭게 뜬 새별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제주의 많은 축제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들불축제 덕분에 유명세를 탄 오름이기도 하다. 마침 17일부터 19일까지 들불축제가 열릴 계획이어서 능선에 새겨 넣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무사안녕'이라는 글이 선명하다.

새별오름은 아름다운 곡선미와 달리 꽤 가파라 정상에 다다르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오름 정상에 오르니 서북쪽으로 광활한 어름비(애월읍 어음리) 별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어름비는 목호의 난 당시 최대의 격전장이었던 곳으로 육백여년 전 '창검이 하늘을 찌르고 간과 뇌가 들판을 덮었다'는 제주역사의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현장이다.

원나라가 망한 뒤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에 명나라가 탐라에 있는 원나라 말 2천 필을 요구하자 고려 조정이 제주목에 관리를 보냈다. 하지만 제주도내 목마장을 관리하던 몽골인인 목호들이 원 세조가 기른 말을 명나라에 보낼 수 없다 하여 관리들을 죽이고 난을 일으켰다. 이에 최영 장군이 군사 2만5천명을 이끌고 목호의 난을 진압했다.

제주역사기행의 작가 이영권씨는 목호의 난 진압은 "중양의 관점에서는 조국 땅에서 외세를 몰아낸 자주성의 상징"일 수 있지만, 제주인 입장에서는 "최영은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학살의

책임자이며, 목호의 난은 43 이전에 외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최대의 희생사건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제주의 어느곳 하나 핏빛으로 물들지 않은 데가 드물지만 이곳 대학살의 현장에서는 6백여 년이 흐른 뒤 그 후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달봉(二達峰)은 두 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뤄진 오름이어서 이름 붙었다. 새별오름 서사면 쪽에 자리 잡은 이달봉 정상에는 묘가 있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은 “이 지역은 뒤로 주산인 새별오름이 험한 기를 눌러준다고 생각해서 뒷자리로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웬만하면 묘를 쓰지 않겠지만 과감히 쓴 것이라고 한다.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안에 있는 누운오름은 남서쪽 봉우리가 소의 머리 형상을 띄어 납작이 누어있는 형태인데 마침 분화구 안에는 소 떼가 바닥에 배를 깔고 누운 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누운오름은 크고 원형에 가까운 넓은 분화구가 절경이고 분화구내에도 자그마한 알오름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은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크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으며 분화구를 관통하는 농로가 개설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동행탐사기]“오름탐사는 제주역사 바로알기”

동장군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날, 한라산 대탐사단의 오름 탐사를 따라 나섰다. 그동안 제주의 하천과 오름에 대한 탐사활동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또한 지면을 통하여 보아왔던 바 모처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지난 1월에는 제북50산우회 동료들과 한라일보에 게재된 기사들을 모아두고 서거문오름의 곳곳을 찾아 헤맸던 기억들이 새롭기만 하다.

탐사하는 동안 오름을 산행하는 시간보다 각 부분의 탐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오름과 그 주변의 자연과 인문환경에 대한 진지한 설명과 토론 시간이 더 걸리는 산행이었던 것 같다. 요즘 휴일이면 제주의 오름을 중심으로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오름은 운동장이 아니다. 오름 산행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오름 속에 스며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느끼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탐사단과 산행으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제주도산악연맹은 올해부터 회원과 등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등산학교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등산학교에서 정통 알피니즘에 입각한 산악인 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그 속에 스며있는 우리의 삶 그 자체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느낀다.

오직 열정 하나로 탐사에 최선을 다하는 탐사단의 모습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아니면

대를 이어서라도 탐사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단장님의 말씀에 진한 감동을 받으면서 새별오름을 내려오는 발길은 가볍기만 하다.

<고충홍/제주도산악연맹 회장>

[전문가 리포트]새별오름의 들불축제와 식생

새별오름은 최근 '들불축제'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화입이 행해지는 면적은 약 10만평에 달한다. 화입(火入)은 제주어로 '방애'라 불리며 1965년 산불의 위험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기 전까지 제주도 오름과 목장지대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온 전통을 갖고 있다.

'화입에 의한 새별오름의 식물상 및 식생변화(송국만, 2004)'에 따르면 새별오름의 식생은 크게 두 지역 즉 띠, 참억새 등이 우점하는 초원지대와 목본식물(때죽나무, 팽나무, 고추나무, 꾸지뽕나무 등)이 숲을 이루는 분화구 내륜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화입은 남동사면 초지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새별오름에서 출현하는 식물은 총 220분류군이 분포하며 화입지에는 168분류군, 비화입지는 총 201분류군이 분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비화입지 중 종다양성이 높은 분화구 내륜 지역까지 포함해 종수가 화입지에 비해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종 다양도는 화입지가 비화입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화입지가 비화입지에 비해 많은 식물들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별오름의 화입은 일반 산불과 달리 초지대의 표면만 짧은 시간에 타버리는 지표화가 일어나 생육이 완전히 멈춘 시기인 이른 봄에 지상부를 제거함으로써 식물의 발아와 생장에 양호한 광 조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종의 피압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 한국특산식물로 제주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식물 갯취의 경우 화입 후 종자발아 여건이 좋아져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외래식물은 화입지가 17분류군, 비화입지역은 11분류군이 분포해 화입지가 비화입지에 비해 외래식물 종수가 더 많다는 결과가 확인됐는데 이는 외래식물의 주 분포지가 목장, 개간지, 도로변 등 나대지에 주로 침입하는 사실과 일치하며 이러한 외래식물들이 어떠한 천이 양상을 보이는지는 몇 년 더 꾸준한 연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강영제 탐사위(난대산림연구소/식생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